

자기 진술에 의한 유·무배우 여자노인의 생활실태

이 신 숙[†]

순천대학교 소비자·가족아동학과

A Study on the Living Status of Widowed and Unwidowed Elderly Women Based on the Self-Report

Shin-Sook Lee[†]

Associate Prof., Sunch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living status of widowed and unwidowed elderly women by means of the case study employing in depth interviews.

The main results are following :

First, In the case of economic status of elderly women was very low: widowed, it was significantly low. The allowances were provided by their children. And they were spent for medical expenses-

Second, Most elderly women have one or two chronic diseases, mostly Arthritis, Gastritis, Hypertension.

Third, The emotional relationship of the elderly women centered around their children.

Fourth, Leisure activities of the elderly women were not partially formed, usually T.V. watching, chatting, playing Korea cards.

Fifth, The elderly women wanted most to work for house chores, do light exercises, and to earn pocket money.

Sixth, The wish for the government was financial support/ health support/ and emotional welfare support.

Key words : the living status of widowed and unwidowed elderly women, self-report

[†] Corresponding author : H.P : 019-206-2783, e-mail : lsi@sunchon.ac.kr

본 연구는 유·무배우 여자노인의 전반적인 생활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기진술을 통한 사례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무배우 여자노인의 경제상황은 대체로 열악하였으며 그 중 무배우 여자노인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각하였다. 용돈은 주로 자녀들이 주는 것으로 충당하고 있었으며 그 지출용도는 병원비나 약값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둘째, 거의 대부분의 여자노인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표적인 질환은 관절염, 위염, 고혈압이었다. 셋째, 유·무배우 여자노인의 정서적 관계의 중심축은 자녀였다. 넷째, 유·무배우 여자노인의 여가활동은 구제적인 것이 없었고 집에서 T.V를 보거나 잡담, 화투를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유무배우 여자노인이 현재 가장 하고 싶은 것으로는 소일거리가 있어 몸을 움직이는 것이었으며 일을 통해 생활비에 보탬이 되는 용돈을 버는 것이었다. 여섯째, 유무배우 여자노인이 국가나 정부에 대한 바램은 경제적 지원, 건강관련 지원, 정서적 지원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유·무배우 여자노인, 생활실태, 자기진술.

1. 서 론

산업화의 진행에 따라 노인의 지위 및 생활은 여러 측면에서 어려워지며 불리해지고 있다. 즉 과거에는 노인들이 갖는 경험과 연륜은 젊은이가 갖는 지식보다 우위에 있어 가족내 외적으로 존경과 대우를 받았으나 지금은 퇴색된 지식으로 받아들여져 노인의 위치는 열악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도 도시화와 가족규모의 축소는 의지할 곳 없는 노인을 늘어나게 하고 있고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켜 노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노인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경제적인 측면을 살펴보더라도 전체 생활보호대상자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노인빈곤의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으로 들 수 있다(보건복지부, 1999). 그리고 노인의 용

돈 사용처 중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항목으로 '약값' 또는 '의료비'로 답하는 노인이 많다는 사실에서 노인들의 건강문제는 피할 수 없는 당면한 근심과 걱정거리로 보고되고 있다. 이렇듯 노인들의 건강문제는 노인 당사자들의 문제일 뿐 아니라 그들을 부양하는 가족과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주 관심사이기도 하다. 더구나 현대 의학기술과 영양상태의 호전은 신체적 노화와 장수를 동반한 유병 장수하는 노인의 수를 급증시키고 있다. 이같이 만성질환을 동반한 유병장수 노인은 만성질환이 완치하기 어렵고 퇴행성이라는 특성으로 장기간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본인 및 그들을 부양하는 가족들을 더욱 더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직업과 관련된 사회적 역할의 상실과 더불어 세대간의 갈등과 단절로 인한 고립과 소외의 문제는 노인들로 하여금 우울증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의 발달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의 삶은 4품라 하는 빈곤, 질병, 고독, 역할상실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노인문제는 여자노인의 문제라고 할 만큼 전체인구에서 여자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2000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337만 2천명으로 이중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61.8%(208만 4천명)나 된다(동아일보, 2003). 이처럼 노인인구 중 여자노인이 많은 이유는 여자노인의 평균수명이 남자노인보다 거의 7-8년이 길기 때문이다(2010년 남자의 기대수명은 75.5세, 여자의 기대수명은 82.2세이다: 통계청, 2001). 이와 같이 남녀간의 평균수명의 차와 남편 연상혼이 일반적이었던 과거 혼례관습을 볼 때 여자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와의 사별 등으로 인해 배우자가 부재한 경우가 많다. 여자노인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젊었을 때부터 오직 가정 내에서 남편의 사회활동을 돕고 자녀양육에 전념하면서도 정작 본인을 위해서는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채 노년기를 맞았고 이와 같이 배우자가 없는 가운데 타인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여자노인이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비율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20대와 30대에서는 혜택 받는 비율이 남녀가 비슷하지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3배 정도가 더 많다(보건복지부, 2002).

노년학 연구에 있어서 노년기를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된 '생활만족도', '삶의 질', '삶의 만족도', '심리적 복지감'이라는 주제 하의 많은 연구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김태현 외 4인, 1999; 고승덕, 1995; 권중돈·조주연, 2000; 박경란, 1988; 박충선, 1990; 서은정, 1993; 송주은, 1993; 윤중희·이혜경, 1997; 이신숙, 1995; 조옥희, 1991; 최정신, 1997).

관련연구에서 밝혀진 몇 가지의 주요한 결과 중에서 배우자의 생존여부는 노년기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지고 있다(박경란, 1988; 서은정, 1993; 송주은, 1993; 조옥희, 1991; 이신숙, 1995; 이혜숙, 1994). 즉 배우자가 없는 노인들은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이 커지며 그동안 지냈던 지위와 권위까지 흔들리게 되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다. 이러한 충격은 생활환경이 가정 내에 국한되었던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더 하다고 할 수 있다.

노화에 대한 논의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여 만족스럽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은 현대의 노인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 중에서도 현재 노인이 자신의 생활을 어떻게 보내고 있으며 그 상황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생활실태 조사는 당면한 노인문제의 정도를 알아내고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그 동안의 많은 연구들은 노인대상의 양적분석을 통해 노년기에 처한 그들이 지닌 다양한 변수가 그들 삶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그렇지만 본 연구는 크게 주목받지 못한 노인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이 진술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요약·정리함으로써 현재 노인들의 삶의 실태로서 받아들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문제를 심각하게 경험하는 여자노인을 대상으로 배우자의 유무를 중심으로 분류하며 그들로부터 현재 생활에 대한 진술을 직접 듣고 기술함으로써 유·무배우 여자노인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무배우 여자노인의 전반적인 생활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유·무배우 여자노인의 전반적인 생활실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유·무배우 여자노인의 특성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2003년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7%를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여자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고령노인의 대다수를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다(1999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성비는 여자노인 100명당 남자노인은 55명이고 85세 이상 연령에서는 249명이다)(통계청, 2001)·이와 같이 여자노인이 갖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여자노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거기다가 여성의 재혼을 금기시하는 문화적 분위기로 배우자가 없이 노년기를 홀로 지내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남자노인보다 더 긴 노인생활을 보내면서 열악한 환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평생을 남편과 자식을 위해 희생과 봉사로 살아오면서 의무만 강요된 채 자신의 삶을 살아왔다. 또한 남아선호사상에 젖어 자녀(특히 아들)에게 정성을 다하나 자녀의 결혼으로 상실감과 허전함을 갖게 되고 노년기에는 며느리와 관계에서 고부갈등이라는 상처를 남기도 한다. 더구나 젊은 여성들의 교육기회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시어머니를 약자의 위치로 만들기도 한다(이신숙, 1998).

한편 노화에 대해서도 이중기준(double standard)이 적용되어 여자노인은 자신·의 노화현실을 남자노인보다 더 부정적으로 자각하여 자아개념 형성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자노인들은 성별과 연령에 기초한 차별에 의해 고통을 받

는다해도 과언이 아니다(김영화 외, 2002).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여자노인들의 생활배경이 주로 가정 내에 국한되어 소득과는 거리가 멀었다. 혹시 직장생활을 했더라도 남성에 비해 직장생활의 기간도 짧으며 임금수준도 낮았으며 결혼 후 취업의 어려움 등은 빈곤과 이어질 수 밖에 없었다. 보건복지부(2000)의 통계자료에서는 우리나라 빈곤한 노령인구 중 4/5가 여성이며 10명의 여자노인 중 1명은 절대 빈곤상태에 있고 시설보호대상자의 739%가 여성노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노령기 삶의 지표인 건강 역시 남자노인보다 평균수명이 길어 장수하기는 하지만 잦은 출산과 과도한 가사노동의 경험으로 유병율이 더 높다. 즉 허리가 굽거나 골다공증, 관절염, 요통과 같이 신체적 노화가 촉진되어 질병이 많아지는 것이다. 정경희 외(1998)의 연구에 의하면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여자노인은 482%인 반면 남자노인은 23.7%로 여자노인의 만성질환의 유병율이 높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신체적 변화는 여자노인에게 청춘과 아름다움의 상실에서 오는 그리고 현재 자신의 외모 추함에서 오는 비판과 우울의 바탕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우울과 정서적 무감각은 정신적 증상을 유발하기도 하고 문제를 완화해 줄 지지체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후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하기도 한다(김영화외 1인, 2002).

배우자가 없는 여자노인의 경우 이러한 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배우자의 죽음은 그 어느 생활사건보다도 더 커다란 위기를 가져오는데 사별한 남녀노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Tompson 등(1984)의 연구에서는 남녀 모두 사별전보다 건강이 나빠지고 질병에 쉽게 걸리며 약물을 복용하기도 하여 죽음까지도 초래한다고 하였다. Palmore과 그의 동료들(1979)도 배우자의 죽음은 자원의 손실, 즉 경제적 수입의 감소와 사회관계망의 축소를 가져오는데 특히 여자노인에게는 더 심각하다고 하였다. 그 이외에도 국내의 여러 연구(김영화외, 2002; 동아일보, 2003; 윤종희, 이혜경, 1997; 이신숙, 1995; 조속희, 1995)에서도 배우자가 없는 여자노인이 배우자가 있

는 여자노인보다 외로움을 자주 느끼며 노후 생활만족도에 있어서도 불만족하며 자아존중감이 낮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여성에 있어서 배우자의 생존여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보다 심각한 문제는 배우자가 없는 여자노인이 건강이 좋지 못할 때 그들을 돌보는 사람이 없는 경우이다.

2. 노인의 생활실태(삶의 질)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따라 늘어난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적 부양부담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낳고 있다. 그러나 노인은 단순히 부양받거나 보호받는 의존적인 대상이 아니라 연장된 노년기를 적극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존재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생명보존과 수명연장이라는 의미보다는 생과 대상자의 질적인 삶을 더 중시해야 함을 의미한다(Freed, 1984).

다시 말해 우리 모두는 안정된 상태를 통해 이상적인 행복을 추구한다. 따라서 노년기 특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인, 가족, 단체 및 사회의 노력들이 경주되고 있으며 문제해결을 통해 그들이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및 사회문화적으로 인간다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노인복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년기는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및 사회적인 능력이 쇠퇴하는 시기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당면한 문제로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즉 경제적으로 수입이 줄어들어 빈곤하게 되고 신체적, 생리적 으로 약화되며 정신적, 심리적 측면의 변화와 함께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갖게 되어 삶의 질은 떨어지게 된다.

연구들(권중돈, 조주연, 2000; 김태현, 2000; 김태현 등, 1998; 최정신, 1999; Mannell & Dupuis, 1996; McClelland, 1982; Morgan, 1976; Palmore et al, 1979)은 노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고려되는 요인으로 건강상태, 경제상태, 교육수준, 질병유무, 성별, 결혼상태, 자녀유무, 자녀와의 유대관계, 사회참여, 친구, 종교, 성역할 정체감, 노년기 발달과업의 수행여부, 현 거주지 환경 등을 밝히고 있다.

즉 노인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사회적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건강상태는 남성노인보다는 여성노인이, 연소노인보다는 고령노인의 경우 더 중요한 만족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annell & Dupuis, 1996). 경제상태는 건강상태와 함께 생활만족을 예언하는 중요한 변인으로서 은퇴로 인한 소득의 상실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초래하며 고립과 외로움의 원인이 된다. Chatfield(1977)도 은퇴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은 역할의 상실에 기인하기보다는 은퇴에 따르는 수입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밝혀 경제적 안정이 노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육수준 역시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성별에 있어서는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일반적으로 삶의 만족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그다지 의미있는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는 보고(Ling, 1982; Palmore & Kivett, 1979)도 있다. 결혼상태에 있어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없는 노인에 비해 정신적 질환이나 자살률, 사망률이 낮으며 사회적응도도 높아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자녀의 유무나 자녀와의 유대관계는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들의 생활만족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한국갤럽조사(1990)에 있어서도 한국가족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으며 별거하더라도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 빈번한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 노인들의 생활만족에 있어 자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구들은 사회활동 참여가 많고 주변에 친구가 많을수록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는 높아진다고 밝히고 있으며 노인들이 할 수 있는 활동중에서 사회활동, 외출과 여행, 자원봉사활동 등이 특히 삶의 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하였다. 종교는 노인이 겪는 배우자의 상실이나 고독과 소외를 달래줄 수 있는 비공식적 지지기반으로서 노인들의 정신영역에 위안을 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태현, 2000). 따라서 종교활동에 참여가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으며, 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된다. 노인들의 생활만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성역할 정체감은 양성형이라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는 노년기가 남성적 역할과 여성적 역할이 비슷하게 요구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김태현(1986)은 노년기의 발달과업 성취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고 여러 부분의 발달과업 중에서도 가족차원의 발달과업 성취도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이라고 하였다. 노년기는 체력이 떨어지고 많은 신체적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현 주거환경도 삶의 질을 결정짓는 변인이다. 즉 통풍과 환기, 일조량이 충분하며, 조용하고, 가족, 이웃과의 거리가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며, 개인의 자유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최정신, 1998).

Ⅲ.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유·무배우 여자노인의 전반적인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심층면접을 통한 사례조사를 하였다. 조사대상은 65세 이상 전남의 중소도시인 S시에 거주하는 32명의 유·무배우 여자노인이다. 면접은 총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이 결여된 18사례를 제외한 32사례만을 자료로 선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전체 32사례 중 유배우 여자노인의 사례는 14건이고 무배우 여자노인이 18사례로 조사되었다.

조사는 2002년 11월 1일부터 12월 10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조사방법으로 택한 심층면접은 본 연구자에게서 노년학을 수강받는 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면접을 위해 철저하게 사전교육이 이루어졌으며 면접은 녹취와 기록등의 방법과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2. 조사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이다.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는 부분과 Birren과 Hedlind(1987)의 반구조화된 지시적 자서전 방법을 사용해 전반적인 생활실태를 알아보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종교, 과거 주 종사직업, 수입원, 가족의 총수입, 자가여부, 동거가족원수, 거주형태, 자녀수(아들, 딸)을 알아보는 14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유무배우 여자노인들의 생활실태를 알아보는 질문으로는 1) 경제상황 2) 건강상태 3) 정서적문제(부부 적응문제 또는 홀로 된 삶에 대한 느낌, 자녀·친척·친구·이웃과의 관계, 최근 가장 기쁠 때와 괴로웠던 때와 그 이유, 가장 쓸쓸할 때와 그 이유, 괴롭거나 어려운 일에 대한 해소방법, 나이든 분들의 이성교제와 재혼에 관한 생각) 4) 여가활동 및 하루의 일과 5) 가족관계(가족

관계 및 가족관계 만족도, 자녀와의 동거에 대한 생각, 자녀들의 지원방법) 6) 귀하가 현재 가장 하고 싶은 일 7) 국가나 정부에 대한 바람 등을 중심으로 구조화하였다.

구조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노인 1인당 면접시간은 1-3시간 정도(평균 2시간) 소요되었으며 녹취와 기록 등으로 남겨진 면접내용을 가지고 내용분석을 통하여 결과화 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1과 같다.

표 1 면접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사례 수	배우자 유무	연령	학력	종교	과거 주종사 직업	주 수입원	가족의 총수입	건강 상태	자가 여부	자녀수	동거 가족원수	가족형태
1	유	71	무학	불교	농사(주부)	본인	50만원 미만	나쁘다	자가	5남	2	본인+배우자
2	유	68	초중퇴	무	"	기혼 딸	"	그저 그렇다	"	2남2녀	3	본인+배우자+손자녀
3	유	74	무학	불교	"	기혼 아들	100-150	좋다	"	3남3녀	2	본인+배우자
4	유	70	"	기독교	주부	"	50만원 미만	그저 그렇다	임대	1남2녀	2	"
5	유	74	"	불교	농사(주부)	본인, 기혼아들	"	"	자가	2남1녀	7	본인+배우자+장남가족
6	유	71	초졸	"	양재업	배우자	"	"	"	2남2녀	2	본인+배우자
7	유	67	초졸	무	농사(주부)	본인, 배우자	50-100	나쁘다	"	3남2녀	2	"
8	유	68	고졸	불교	공무원	본인, 배우자	100-150	그저 그렇다	"	2남2녀	3	본인+배우자
9	유	73	무학	천주교	식당업	기혼 아들	200-250	좋다	"	1남2녀	5	본인+배우자+장남가족
10	유	69	초졸	기독교	농업(주부)	본인, 배우자	50-100	나쁘다	"	3남2녀	2	본인+배우자
11	유	70	무학	불교	"	본인	50만원 미만	"	"	"	2	"
12	유	71	초졸	천주교	식당업	"	150-200	좋다	"	1남2녀	2	"

사례 수	배우자 유무	연령	학력	종교	과거 주종사 직업	주 수입원	가족의 총수입	건강 상태	자가 여부	자녀수	동거 가족원수	가족형태
13	유	78	무학	기독교	농업(주부)	정부 보조금	“	나쁘다	임대(교회)	’	2	본인+배우자
14	유	71	“	불교	“	배우자	50-100	그저 그렇다	자가	1남2녀	2	본인+배우자
15	무(사별)	78	“	“	“	기혼 아들	200-250	“	자녀의 집	3남4녀	6	본인+장남가족
16	무(별거)	67	초졸	“	식당일	여러 자녀	50만원 미만	“	자가	4남2녀	1	본인(홀로)
17	무(사별)	67	“	무	식당업	본인	50-100	“	임대	1남1녀	2	본인+미혼아들
18	“	87	무학	“	농사(주부)	기혼 아들	150-200	나쁘다	자녀의 집	3남1녀	5	본인+장남가족
19	“	80	“	불교	“	“	50만원 미만	“	자가	2남4녀	1	본인(홀로)
20	“	76	“	“	“	“	200-250	그저 그렇다	자녀의 집	4남3녀	5	본인+장남가족
21	“	70	기독교	기독교	상업	“	50만원 미만	“	자가	3남2녀	1	본인(홀로)
22	“	73	무	무	농사(주부)	“	250-300	“	자녀의 집	4남2녀	9	본인+둘째아들가족
23	“	73	불교	불교	공장일	“	50만원 미만	나쁘다	자가	5남1녀	1	본인(홀로)
24	“	68	“	“	농업(주부)	본인, 기혼 딸	100-150	좋다	“	1남1녀	1	“
25	무(별거)	72	기독교	기독교	주부	기혼 아들	50-100	그저 그렇다	“	3남1녀	1	“
26	무(사별)	92	천주교	천주교	공장일	“	50만원 미만	좋다	자녀의 집	1남3녀	5	본인+딸가족
27	“	75	무	무	“	“	“	“	자녀 임대	3남3녀	2	본인+손자녀
28	“	70	무	무	상업	본인	“	그저 그렇다	자가	1녀	1	본인(홀로)
29	“	28	기독교	기독교	주부	기혼 아들	200-250	나쁘다	자녀의 집	2남1녀	4	본인+장남가족
30	“	76	천주교	천주교	농업(주부)	정부 보조금	50만원 미만	나쁘다	임대	.	2	본인+손자녀
31	“	75	불교	불교	“	본인	“	그저 그렇다	자가	2남1녀	1	본인(홀로)
32	“	79	무	무	상업	며느리	50-100	“	자녀의 집	3남4녀	4	본인+장남가족

표에서와 같이 조사대상 노인은 유배우 여자노인이 14명, 무배우 여자노인이 18명으로 선정되었다. 먼저 여자노인들의 연령은 67세-92세로 다양한 분포를 나타냈으며 그 중 무배우 여자노인들의 연령이 대체로 높았다. 그리고 여자노인들의 학력은 17명(53.1%)이 무학이었고, 12명(37.5%)이 초등학교 졸업, 1명이 초등학교 중퇴, 1명이 중학교 졸업, 나머

지 1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유·무배우 여자노인들의 종교는 불교를 믿는 노인이 14명(43.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종교를 갖지 않았으며(8명), 기독교(6명), 천주교(4명) 순이었다. 과거 여자노인들의 주 종사 직업은 농사와 주부의 일을 함께 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16명:50.0%) 식당일·공장일 등의 잡일을 한 경우가 7명(21.9%) 이었다. 그리고

여자노인들의 생활비의 주 소득원을 의미하는 주 수입원은 기혼아들, 딸, 며느리의 경우가 가장 많아 19명(59.4%) 이었고 본인과 배우자가 직접 충당하는 경우도 11명(34.3%)이나 되었으며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2명(6.3%)이었다. 여자노인의 가족의 총수입은 50만원 미만인 경우가 15명(46.9%)나 되어 생활이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건강상태는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16명(50.0%)으로 가장 많았지만 대부분의 여자노인이 진술을 통해 한,두가지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으로 자리에 눕지 않고 거동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자신의 건강을 '그저 그렇다' 라고 답한 것으로 보인다. 여자노인들의 자가여부를 살펴보니 62.5%의 노인들이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다음이 자녀의 집에서 거주한다고 하였는데(21.9%) 이들 노인의 대부분은 무배우 여자노인이었다. 자녀수에 있어서는 2명만이 자녀가 없었고 대부분의 노인들(30명:93.7%)은 다복하였다. 동거가족원 수와 이에 따른 가족형태는 동거가족원 수가 2명인 경우가 13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 경우는 본인과 배우자 또는 손자녀와 미혼자녀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홀로 거주하는 경우도 8명(25%)이 있었는데 이 경우는 무배우 여자노인의 가족형태였다. 그리고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여자노인의 경우는 10명(31.3%) 이었다.

2. 유·무배우자 여자노인의 생활실태

유·무배우 여자노인들의 생활실태는 1) 경제상황 2) 건강상태 3) 정서적문제(부부 적응문제 또는 홀로 된 삶에 대한 느낌, 자녀·친척·친구·이웃과의 관계, 최근 가장 기쁠 때와 괴로웠던 때와 그 이유, 가장 쓸쓸할 때와 그 이유, 괴롭거나 어려운 일에 대한 해소방법, 나이든 분들의 이성교제와 재혼에 관한 생각) 4) 여가활동 및 하루의 일과 5) 가족관계(가족관계 및 가족관계 만족도, 자녀와의 동거에 대한 생각, 자녀들의 지원방법) 6) 귀하가 현재 가장 하고 싶은 일 7) 국가나 정부에 대한 바람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선정되어 사례로서 기술된 내용은 전체 사례 가운데 무작위로 추출되었으며 유배우 여자노인 중에서 선정된 사례는 -유.사례1,2,3.....-로, 무배우 여자노인 가운데 선정된 사례는 -무.사례1,2,3.....-으로 표현하였다.

1) 경제상황

본 조사를 통한 노인들의 사례에서 경제상황에 대한 질문(현재의 경제상황, 경제적 관리는 누가, 용돈의 출처와 지출용도)에 대한 응답은 다양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모든 여자노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특히 무배우 여자노인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각하였다. 2002년 우리나라의 사회 통계조사에서도 나이가 들면 '건강'이나 '외로움'보다는 '경제문제'가 더 큰 어려움이라고 대답한 노인들이 많다(동아일보, 2003)라고 보고된 바 있다. 그리고 유·무배우 여자노인의 용돈은-주로 자녀들이 주는 것으로 충당하고 있었으며 그 지출용도는 병원비나 약값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생활비에 보태거나 손자녀들의 용돈, 현금 등 필요시에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없는 형편에 그나마 모든 돈문제는 남편이 위주로 해서 살지 뭐.... 옛날부터 계속 그랬는다. 용돈같은 거? 남편한테 아예 받아본 적이 없어. 생각해 본적도 없고....생활비도 남편한테 필요할 그때 그때 타서 쓰지. 용돈은 노상 자식들한테서 나오지. 영감은 안준게. 생활비 말고는.... 자식들이 준 용돈은 병원비로도 쓰고 장날 나가서 나물도 사고.... 많이 쓰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디"-유.사례1-

"가게에서 나오는 걸로 조들리게 살아. 조달리지. 용돈은 지금부터 받으면 어떻게 해. 늙어서 받아야지. 무슨 일이 날 때 자식들이 가끔 줘. 돈 관리는 무슨 관리여? 가게에서 얼마나 나온다고. 지금 전기세도 두 달이나 못냈는데 관리랴게 뭐 있나?"-유.사례2-

"과거에는 농사를 지며 근근히 살았는데 지금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여서 그것으로 살아. 용돈은 자식들도 어려우니까 기대하기 힘들고 정부가 주는 지원금으로 생활비로 가장 많이 쓰고 또 교회 현금으로 내."- 유.사례3 -

"말도 마라.... 젊었을 때부터 할아버지가 아파가지고 우

리 애기를 학교 다니기 전부터 내가 일해서 살았다. 할 줄 아는 게 밥하고 소지하고 그래 식당에서 돈벌어 밥먹고 살았다. 용돈? 자식들이 주제... 그 돈으로 목고 사는데 보태고 성당에 헌금도 내고 하제. 돈 관리는 내가 한다... 세금 내고, 목고 살고, 헌금하고 그러는 없다.” -유.사례4-

“아이구...말도 말어. 왕년에랑은 우리 영감 살았을 적만 해도 이 유지에서 잘 살았지. 근디 뒤편. 시방은 그 많디 많던 논도 없어지고... 영감 죽자 혼자 자식 갈길랑께. 딸들 학교 제대로 못 보낸게 젤 맘이 아프제.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용돈은 자식들이 주제. 그것으로 병원 갈 적에 쓰고... 근디 약값이 많이 들어. 뎡 놈의 약이 이리도 비싼지...가끔 손주들 오문 조금 주고 그지 뭐...돈관리는 뭐 있어야 하제. 관리고 자시고 할 것 없어.” -무.사례1-

“영감이 젊어서부터 돈벌이를 못해 갖고 근근히 살았제. 나가 시집을 적부터 가난한 집이드만. 궁께 새끼들 학교도 제대로 못 보냈제. 재산도 가진 것이 있어야 남겨주든가 하제. 나랏님이 안 돌봐주든 당장 죽을 판이랑께. 용돈은 자식들이 좀 줄 때도 있는데 시청에서 주는 기초생활비라고 주는 돈으로 사니께 딱히 용돈이라고 말 못하것네. 그 중에서 손자들 과자 사주는 것으로 많이 나가제.” -무.사례2-

“그냥 아무것도 없어...망조가 들었지.(옆에 계시던 동네 할머니께서 이 할머니가 시집을 때는 소문난 부자였다고 하셨다). 용돈은 시청 복지계에서 주고 그걸 갖고 차표사고 세금 바치고 닭모이도 사고 글제. 그리고 돈 관리는 얼마 안되는 돈이라 내가 조금씩 조금씩 쪼개서 하지...” -무.사례3-

2) 건강 상태

조사된 유·무배우 여자노인의 대부분이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병은 관절염으로 인해 걸음걸이가 어려워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였다. 그 이외에도 위염, 고혈압 등의 노인성질환이 많았으나 치료가 거의 방치된 채 이루어지지 않았고 죽지 못해 산다고 푸념하는 분들이 많았다. 이러한 사례조사 결과는 정경희 외(1998)의 연구에서 여자노인이 지닌 가장 많은 질병으로 관절염, 요통·좌골통, 고혈압, 소화성궤양, 백내장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예전에는 건강상태가 좋은 편이었는데 지금은 늙어서인지 다리가 아파 걷지를 못해라우. 병원에서는 골다공증인가 뭔가로 말하든디..... 그렇다고 특별히 치료받는 것은 없고 너무 아프면 진통제를 목든가 가까운 보건소를 가보요. 이렇게 걷지를 못하게 박카테를 나뎡기지 못해서 답답해 죽것소.....” -유.사례1-

“나이가 든께 무릎에 관절이 생겨서 아픈디 운동같은 것 안하고 집안 일은 그냥 운동삼아서 해. 특별히 건강관리 하는 것은 없제. 빨래하고 식사준비하고 노상 그럼시롱 살아.” -유.사례2-

“요즘 다리가 너무 아파라우. 그래서 걸어댕기기도 힘들고 평소에도 거동이 불편해라우. 그래서 일주일애 한번씩 물리치론가를 받으러 다니니까 좀 낫소.” -유.사례3-

“얼마 전에 내가 수술을 했든디. 계속 소화가 안되는 것 같더니만 병원에 가본께 간에 돌이 박혔다네. 레이전가 레이전가 그걸로 수술했제. 수술헌데는 안 아픈디 아직은 속이 좀 꺼억 꺼억- 해. 건강관리... 그 뭐시냐. 원적외선 안마기.... 그거 딸이 사다줘서 하든디 좋은 것 같터.” -무.사례1-

“수술하고 괜찮다고 했든디 요즘은 머리가 멍하고 귀에서 윙윙거린당께. 머리를 조금만 잘못 움직여도 아파. 여기 께맨 자국 있제? 거기가 아프당께. 그거 말고도. 허리가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온 몸이 쑤시고... 빨리 죽음사 좋갔든디 죽지도 않고.....” -무.사례2-

“노인이라 아프지 않는 곳이 없지라우. 올 여름에도 넘어져서 다리를 다쳐서 오랫동안 병원에 있었어라우. 글고 병원에 계속 다님시롱 치료를 했든디 통 낫지를 앓는다 말이오. 그제 잡고 일어서고 걸을 때도 절뚝거리고 시상 죽지 못해 사요. 건강관리는 뭐시다요. 먹는 것부터 내가 다 해 먹어야 하든디.....” -무.사례3-

“아이고... 맨날 허리도 아프고. 걸어댕길라든 어지러와서 퍽 꼬구라지네. 에이구. 뱃창시도 꼬여서 똥 먹어도 통 밀으로 내려가지를 앓는다 말이요. 늙으론 죽어야제. 글고 내가 못 견다보니 병원에도 제때에 못 가지. 기냥 자식들이 사다준 약 목고. 며느리가 해주는 밥이 약이제. 저-번에 우리 둘째 아들이 귀가 안들린다고 병원에서 금사를 받으라고 했든디 그것이 괜한 것거린가 해서 필요없다 했네.... 인자 곧 죽을건디 자식들 돈만 까먹는 것 아닌가.” -무.사례4-

3) 정서적 문제(배우자, 자녀, 친척, 친구, 이웃과의 관계)

① 부부적응문제 또는 홀로 된 삶에 대한 느낌

대체적으로 유배우 여자노인들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관계가 원만하며 잘 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년기의 부부적응을 ‘이심 전심’으로 표현되었던 옛

말이 생각나게끔 한다. 그러나 부부관계를 물어보는 말에는 대답을 회피하거나 꺼리는 등 입에 올리가 어려운 내색을 하셨다. 그리고 무배우 여자노인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재를 자녀에게 의존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살고 있다라는 말로 강한 고독감을 나타내고 있었다.

“우리 영감이랑?(웃으심) 잘 안 싸워... 인자 다 늙어가고 될 싸우고 자시고 혀... 영감이 워낙 무뚝뚝해가지고 말도 잘 안혀... 요즘엔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누워있으면 옆에 앉아서 이불도 덮어주고 그러드라고... 아프기 전에는 따뜻한 말 한마디도 안해 주드만...(웃으심) 하루에도 몇마디 이야기나 할까? 거의 말이 없어...” -유.사례1-

“우리 영감이 결혼하고 나서 10년 뒤까지 정치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써 버렸지. 글고 성질도 급하고 해서 젊었을 때는 많이 힘들었지. 인제는 삼시용 맞춰 버릴게 별 일 없어. 지금은 영감이 몸이 안 좋아서 짜증을 내기도 한다. 그래도 남들보다는 평탄하게 산 편이지.” -유.사례2-

“영감하고 사는게 뭐 그렇고 그렇지. 죽지 못해 사는거니까... 아이- 남사시럽게 될 물어본당가? 그래도...영감이 있으면 좋제” -유.사례3-

“그러저러 살아. 서로 늙어가는 마당에... 뭐... 서로 의지해야제. 어쩔거여. 그래도 영감이 자식보다는 낫당께. 남들이 사이 좋다고들 해. -유.사례4-

“늙으면 빨리 죽어야제. 살기 싫어. 내가 무신 죄가 많아서 아직도 이리 살고 있는지 모르것당께. 죽어야지. 늙으면 죽어야 한당께. 다들 팔배기 싫어서라도 빨리 가 부러야겠어. 수술하고 나서 머리도 더 아프고 아주 죽것어.” -무.사례1-

“우리 영감은 환갑도 못 넘기고 가불었어. 쉰 아홉에. 하이고-언제까지 애기를 하는거여. 한 이십년도 넘었는디. 보고 잡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나 몸뚱이 하나 가누기도 힘들어서 통-그렇거 생각할 새도 없지. 그래도 아들하고 사니께 팬참여... 영감대신 자식들이 있으께...” -무.사례2-

“그냥 쓸쓸하고 외롭고 낙이 없제. 이. 나이에 될 바라는 게 있간? 그래도 새끼들하고 같이 상제 그나마 낫제. 마음이 안 좋으면 딸집, 아들집으로 돌아탕거.” -무.사례3-

“뭐 별거있당가? 그난 무덤덤하지. 젊은 사람도 아나고 다 늙었는디. 혼자 됐다고 외롭고 자시고 그런 마음도 실은 없어. 근디 가끔 심심할 때가 있지. 요즘은 할망구들이랑 게 키우는 낙으로 살아...” -무.사례4-

② 자녀, 친척, 친구, 이웃과의 관계

유·무배우 여자노인들의 자녀, 친척, 친구, 이웃과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배우 여자노인들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재를 자녀와 친밀하게 지내는 것으로 대신하는 경향이 많았고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가족에게 특히 바라는 것은 유·무배우 여자노인 모두가 한결같이 자녀가 건강하고 잘 지내는 것을 원하고 있었으며 자주 만나보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

“나가 아들 서이하고 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도 손자가 스무명이 넘네... 막내딸 손자까지 다 결혼해서 이번에는 쌍둥이를 낳았다네... 손자 키워서 나간다고 시방 우리 집에 와 있는데 매느리가 멧을 맹그러서 주고 모든 수발을 다해 주니께 참 고맙구만.... 아들들도 밥도 잘 먹고.. 술.담배도 생전 안해... 순허디 순해서 그저 무탈하게 살지...글고 가족에게 더 이상 될 바라것어? 일단 죽을 때까지 나 수발했으면 좋것지... 자주오고... 늙은이가 그것 말고 더 바랄 것이 있것는가? 요새는 병든 부모를 바깥에 내버린다고 하더만...”

“여그 할매들이 다 내 친구고 이웃이제 뭐... 저-기 아랫목에 앉아있는 할매만 나이가 아흔인데 나보다 손우구만. 이웃사람들하고는 할매들이 음식 가져오면 노나먹고 넘들 노는 것 구경하고 하는 것이 고작이제.” -유.사례1-

“새끼들하고 자주는 못 만나도 가끔 내다보고 밥 묵었나 물어보고 병원도 같이 가고 약도 타주고 그러제... 자식들은 하든 좋제...지들 할 일도 많을텐데 자꾸 둘러 봐. 자식들한테 바라고 뭐 하고 할 것 없어. 인자는 자식 모두 다 건강하고... 하는 일 잘 허고 우리 맘 걱정없이 일하고 이대로 편안히 살다가 아프지 않고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이 세상 가는거지 뭐...” -유.사례2-

“노인정 땡기면서 술잔씩 하고 에그도 하고. 뭐 그렇잖아! 우리 동네 가차는 사람은 다 알고 지내지. 뭐 찬치있음 노나먹고 우리집에 오기도 하고... 여-유제 가차이 사는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잘혀줘!! 나가 예서 몇십년을 살았는디... 그걸 모른당가-. 잘 알아-. 속사정도 다 앙당께.” -유.사례3-

“화목하지. 같이 살지는 않지만 자식들하고도 전화로 자주 이야기를 하지. 명절 때 만나고. 생각 같아서는 맨날 얼굴보며 지내고 싶지만 그것도 사는게 바쁘고 힘드니... 어찌 내 생각, 욕심대로 할 수 있겠어? 친구라고 따로 만나거나 놀러가지는 않아. 이웃-들은 오다가다 만나지. 요즘이야 영감이 최고지.” -유.사례4-

“지금까지 말했다시피 좋지만은 않지... 남편과는 별거중이고 재혼한 딸과는 연락도 잘 안되고. 딸 아들인 손주는 말쑥한 피우고 그래. 그래도 아들하고는 잘 지내는 편이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커준 아들에게 고마울 뿐이지.

그래도 항상 내 편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내 운명이라면 어찌겠어? 하나님 말씀 기억하지 않고 봉사하는 셈치고 우리 손주나 잘 키워볼꺼여. 교도소에서 나오면 교회도 다니게 할꺼여. 내 생각에 영감하고는 이대로그 최선이라고 생각하네. 어쩔 수 없는거지. 이런 팔자에 만족하며 살아야지... 어찌겠나?

이웃과는 좋은 편이지. 내가 성격이 활발하고 호통해서... 사람들이 잘 따르거든. 교회친구들이랑, 복지관 친구들, 우리 옆집에 사는 이웃들, 나에게는 모두 귀한 사람들이지. 우리 주님도.... 내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살아. 죽고 싶을 때도 살게 해 줬지. 물론 우리자식들이 가장 소중하지만 주님 말씀대로 항상 사랑하며 살려고 노력하제.“ -무.사례1-

“자식들이 잘사나 못사나 애 안태우니까 그건 좋지... 자식들만 잘되면 좋지 머... 맨날 물뭍다 놓고 빌어.... 우리 자식들은 형제간에 우애 좋고 다들 나한테 잘해 줘. 가족에게 특히 바라는 것은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인데... 건강하고, 다들 아픈 곳 없고, 높은 사람되고, 형제 간에 우애있고 그럼 됐지. 참 손주들 대학 졸업하고 좋은 사람 만나야지. 결혼까지는 살아야 할텐디.... 친구들은 할머니들.. 순 할머니들하고 놀지... 내가 좋으면 다 좋은거여. 내가 잘하면 다 잘하지. 알고 보면 다 친척들인데.... 될 수 있음 좋게 살아야지. 누구하고라도. 내가 힘이 있는 한 가서 도와줄 것이고 무슨 일 있음 내가 먼저 찾아가지... 난 아무 걱정 없으께....” -무.사례2-

“내가 얘기를 못 낚서 영감이 후처한데 얻은 아들과 딸이 둘 있긴 하는데... 떨어져 살고 있어... 아들이 가끔 연락을 하긴 하는데. 보고 싶은 맘이 커. 가족에게 바라는 것은 연락 자주하고 자주 봤으면 하는거여. 근디 서로 생활이 어려우나 어쩔것이어? 이웃은 주로 교회 신도들이나 목사님 내외하고 지내고 있고 관계는 좋은 편이여.” -무.사례3-

③ 최근 가장 기쁨 때와 괴로웠던 때는 언제이며 그 이유는?

유·무배우 여자노인들의 가장 기뻐했다고 상기했던 때는 주로 자녀들이 찾아와서 만나는 명절이나 본인들의 생일 또는 배우자의 제삿날 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자녀와의 만남을 첫 번째로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자녀와 관계되는 일이 잘 되는 것을 거론하고 있어 노부모들은 ‘자녀들과 관련된 일’을 기쁨의 일순위로 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괴로웠던 일로는 모든 여자노인들이 한결같이 몸이 건강하지 못하여 아플 때임을 지적하고 있어 ‘건강치 못함’을 괴로웠던 일의 일순위로 여기고 있었다.

“제일 기쁨 때는 내 생일 때... 자식들이 찾아와서 축하

해 줬을 때 기뻐지. 자식 집에서 생일상 받았을 때... 평소엔 얼굴보기 힘들는데 이럴 때라도 한자리에 모여 밥 같이 먹으니까 좋더구만. 가장 괴로웠을 때는 몸이 아파 잠이 안 올때여. 좀 푹 자고 싶은디. 잠 안드는데 힘들어. 내가 자꾸 뒤척이니까 우리 영감까지 잠 못드는 것 같아 미안하드만...” -유.사례1-

“우리 손자들이 와서 재롱떨면 제일 좋지 뭐... 우리 손자들이 그렇게 예뻐 수가 없당께... 근디 몸이 아프면 제일 괴로워. 늙으면 죽어야지...” -유.사례2-

“둘째 며느리가 손주 낳았을 때가 기뻐지. 뭐 이유야 당연하지. 내 손주가 생겼는데. 잘 생긴 손주가 생겨서 기분 좋지 뭐. 괴롭기보다는 몸 아플 때가 제일 서럽지. 나이들은 별것 아닌 것도 다 서럽고 그런 것이여.” -유.사례3-

“우리 며느리가 6주째 잤여... 올때나 어렵게 얻은 며느리디. 우리 막내놈이 한쪽 다리가 짧어. 금계 장애인이라고... 근디 그런 아들놈을 좋다고 쫓아 다니는 아그가 있다고 해서 본게 그애가 지금 그 며느리잖여. 이쁜 것이 마음씨도 좋당께... 그래서 35살 먹은 막내놈이란 24살 목은 우리 며느리랑 작년에 결혼시켰는데 이쁜 것만 한당께..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것당께... 괴로웠던 일이라든... 내가 아팠을 때지. 수술하고 나서 열매나 아픈지 차라리 죽었으면 했당께. 지금도 많이 아파. 열능 일어났음 좋겠는데.” -유.사례4-

“자식들 잘되면 켈로 기쁘지... 그것 하나 밖에 없어. 우리 큰 손주놈 합격 소식이나 들어야 할텐디... 응. 시험보거든...맨날 기도 드리는디... 잘 되어야지. 암... 우리 장손인디. 제일 괴로운건 수술해서 자식들 힘들게 했든 일이여. 요즘 또 다른 다리가 아프니까 일어나고 앉고 그러는게 참 힘들어. 변소도 혼자 가야함께... 특히 새벽에 잠이 깨갠고 다시 잠이 안올께 그제 죽었어. 그때는 영감이라도 누가 있어줬음 하지...” -무.사례1-

“우리 영감 제사때 제일 기뻐지. 그동안 못본 새끼들이 다 왔당께. 손주, 손녀, 자식들 다 보니까 좋더만. 가족들이 다 모이는 일이 제일 좋제 뭐... 가장 괴로울 때? 뭐 딴 것 있당가? 몸이 아플 때가 켈 서럽제. 수술했을 때 무섭드만. 이대로 죽는가 했어.” -무.사례2-

“음... 서울사는 우리 작은 아들놈이 내려왔을 때 기쁘드만. 가가 하도 바빠나서 명절때도 잘 안 내려온다말시. 근디 지 에미 아프다고 하니께 내려왔드라고. 거진 1년만에 얼굴 봤당께... 최근 괴로웠던 일? 119 실려갔을 때. 나 죽는줄 알았당께... 내 생전 이처럼 아파본 적이 없는 것같여...” -무.사례3-

④ 가장 쓸쓸할 때는 언제이며 그 이유에 대하여 여자노인들에 있어 가장 쓸쓸한 시기와 그 이유에 있어서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먼

저 유배우 여자노인의 경우에는 명절이나 노부부의 생일 때 자녀들이 다녀간 뒤가 가장 쓸쓸하고 서운하며,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때라고 진술하고 있었다. 반면 무배우 여자노인의 경우에는 세상을 떠난 배우자가 그리울 때와 몸이 아파 괴로울 때가 가장 쓸쓸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배우자의 유·무는 여자노인의 정서적문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쓸쓸할 때 ? 그런 거 없는데.... 어 명절이나 뭘 날이어서 자식새끼들 손주새끼들 왔다가 갈 때.... 그 때가 가장 쓸쓸하고 서운하고 그러. 맨날 우리 영감하고만 있다가. 보고싶은 우리 이쁜 손주를 보니까 너무 좋지... 근디 가불고 나면 또 나랑 영감만 달랑 남으면 왜 이라 썰렁하고 기분이 묘한지 모르겠어.” -유.사례1-

“설 때. 이유는 뭐가 뭐여... 나이 먹으니까 쓸쓸하지. 젊을 때는 잘 모를거여. 나이 들어 봐. 나이 한 살 먹는게 얼마나 서로운지....” -유.사례2-

“앞으로 남은 여생이 얼마 안 남았잖아. 그게 아쉽당께. 하는 일 없이 집에 가만히 있을라치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생애에 대한 아쉬움, 미련 때문에 맘이 안 좋아. 우리 영감이랑 가는 날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될란지. 혼자 남게 되면 허전하잖아. 뭐 이런거지... 달리 쓸쓸할 게 있겠어 ? 안 그래 ?” -유.사례3-

“영감님 귀가 어두워서 서로 말을 못해... 할 말이 있으면 그걸 다 일일이 적어서 보여줘야 항께... 늘 외롭지.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 하님께. 글고 맨날 누워만 있어... 내가 화장실도 다 테려다 줘야 하고... 다른 건 몰라도 말이 나 통하든 좋겠어. 또 죽을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옆집 할매가 며칠 전에 죽었는데 그것 생각하면 맘이 아파...” -유.사례4-

“혼자 밥 챙겨 먹을 때가 켈로 외롭지... 영감이 죽은 지 하도 오래되서 인자는 쫘 나온다... 혼자 김치 하나 놓고 밥 먹는다. 그럴 때마다 눈물이 솟아. 주책이지... 청송맞게... 또 아픈든 서럽고 그랴.” -무.사례1-

“혼자 산계 쓸쓸하지. 몸은 괴로운디 혼자 있는게... 나가 시방 심장병도 있고 다리도 아프고 통 죽었어...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 니여. 어디 나 가튼 사람이 있으니까 싶어.” -무.사례2-

“감기 기운이 있거나 평소에도 잘 아픈디.... 허리, 다리, 어깨가 아파갔고 누구한테 수발을 받고 싶은디 전화도 없고 글든 새끼들 헌테 무지하게 서운혀. 쓸쓸하드만.” -무.사례3-

“쓸쓸할 때 ? 음.... 텔레비전 같은데서 사이좋은 부부들 나오면 죽은 영감이 생각나제. 글고 노인정에서 할망구들이 그그 영감 자랑하든 마음이 쪼끔 안좋드만...” -무.사례4-

⑤ 괴롭거나 어려운 일에 대한 해소방법

유·무배우 여자노인들이 괴롭거나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해소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하는 방법으로는 종교에 의지하는 것이었고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 친척에게 하소연함으로써 해소하고 있었다. 해소방법에 대한 질문 중에 무배우 여자노인들이 정서적으로 유배우 여자노인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더 분명하였는데 유배우 여자노인들의 해소방법인 타인과의 어울림보다는 주로 사별한 배우자에 대한 기억과 함께 울든지, 기도하든지, 술에 의존하는 방법으로 혼자 해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글세... 우리 같은 경우는 신앙으로 살지. 하나님과 교제 하면서 풀어. 난 성격이 낙천적이라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려고 해. 좋은 것만 생각하고 나쁜 건 해가 지기 전에 잊어 불라고 하지. 하나님이 그러라고 했으니까. 별로 크게 고민하는 것도 없고. 나는 신앙 가진 게 가장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생각해. 믿는게 본직이지. 본업이야.” -유.사례1-

“화나거나 슬플 때는 그냥 냉수 한사발 목고 일하제. 뉘 방법이 또 있당가 ? 우리는 술하게 어떻게 살아서 참는 것은 도가 튼 사람들이여.” -유.사례2-

“나야... 내 몸뚱이도 못 가누디 특별히 해소할 것도 없제 뭐... 통 들리기를 하나 잘 움직일 수 있나... 사람이 못 들으께 통 멍청

해져서... 그냥 경로당에 와서. 다른 할매들하고 핫토치고, 테레비 보지 뭐...” -유.사례3-

“어디다 어떻게 해소를 한당가 ? 그냥 맘속애다 묻지... 아니면 할매들하고 모여서 얘기하든가 하지. 늙은께 눈물이 많아지던만. 울고나면 쾨잖아져.” -유.사례4-

“나는 기도를 하지... 통곡하면서. 그러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지. 예전에 주님을 모를때는 그냥 물 떠 놓고 누군가에게 빌었는데이제 주님이 계시니까 더 편해졌어. 기도하든가, 찬송가를 부르든가 하면 맘이 좋아진당께.” -무.사례1-

“동네 할매들하고 만나서 얘기하지 뭐... 옆집 영감한테 이야기도 하고... 머리가 아픈든 자고 일어나문 돼...” -무.사례2-

“아이 머....그런 일이 있으면 자식들한테 이야기하면 되지 뭐....글고 한발짝만 나가면 다 이웃, 친척인디 가서 같이 밥먹고 얘기하고 끝나...나는 생각이 있으면 입을 잠시도 가

만히 못 놔..." -무.사례3-

"내가 뭐 괴로운 일이 있나? 있어도 영감 생각 함시롱 막걸리 한 사발 받아놓고 그거 먹으면서 울제. 다 늙어 갔고 운다니까 우습제??" -무.사례4-

⑥ 나이드신 분들의 이성교제와 재혼에 관한 생각
유·무배우 여자노인들의 이성교제와 재혼에 관한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반응은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다. 우선 대부분의 여자노인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 고달프게 생각하고 두 번의 결혼 생활로 인해 자신을 희생하고 싶지 않다는 표현을 하셨다. 그러나 일부 여자노인의 경우에는 이성교제와 재혼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여기고 계셨다. 그러나 뜻밖에도 무배우 여자노인이 유배우 여자노인보다 오히려 현재의 홀로 된 생활에 익숙해서인지 이성교제와 재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였다. 이렇듯 여자노인들이 이성교제와 재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이유로는 자식들을 비롯한 주위의 이목을 의식하는 것으로 보였고 상대 배우자를 끝까지 보살피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일부 중사로 가정의 평화를 갖겠다는 의지로 해석되었다.

"당해봐야 아는 거지.... 허허.. 현재까지는.... 그래도.... 젊은사람도 아닌데 재혼은 무슨 재혼! 젊었을 때야 혼자되면 재혼도 좋지만 늙어서는 뭐 그렇게 필요하당가? 이성교제? 나야 우리 영감이 있었으니까 모르지만 혼자되면 가끔 만나서 이렇저렇 얘기 나눌 상대가 있으면 좋겠지. 뭐.. 아휴.. 난 잘 모르겠어. 허허.." -유.사례1-

"아이고 다 늙어서 그게 뭐 것인데? 자식들이 손가락질 하제. 금방 죽을 것인데... 아이고 됐네. 됐어...." -유.사례2-

"뭐... 요런 것까지 물어본당가? 쟁피하게.... 근디 나이 들었다고 남자 못만나고 그러란 법이 어디 었당가? 늙어서 주책이긴 해도 요즘 세상에는 자식들이 부모맘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나이들면 쓸쓸해지고 외로움만 늘어나는 법인데 남자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안그러?? 내 생각이 맞지?" -유.사례3-

"아이고... 통 귀찮해! 인력 몸매이도 못 가늠디. 나이가 야든 여섯이네. 집안이 편할라든 그런거 하든 못 쓰네." -유.사례4-

"나는 절대로 반대하고 싶어. 내 몸 하나도 성가신디... 나이 먹어서까지 또 누구를 보살피는 것 나는 못해...재혼해

서 간섭받는 것도 싫어... 난 그저 자유롭게 살고 싶어. 지금 생활에 만족해. 압튼 난 주변에서 재혼한다고 하든 그짓 하지 말라고 말릴꺼여. 반대여 반대!" -무.사례1-

"허허... 그런 것은 안해. 다 늙어서 어찌 그런 생각이 난다냐? 주책이여 주책... 나 혼자서 편안히 먹고 쉬고 싶으면 쉬고...그럼 됐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다고.... 뭐하러 늙은이를 다시 만나? 젊은 사람도 아니고(웃음). 다시 고생의 시작이지. 영감이 그럴꺼냐 그런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어.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에야 자식들이랑 같이 살지..." -무.사례2-

"아이구... 그게 뭐하는 것이여. 망측하게....다 늙어서... 물론 외롭고 허기야 하지만...자식새끼들 볼 낫이 어딴여, 남사시롭게...나도 혼자 있다 갈겨여. 무신 주책이여... 그게 다 죄여...." -무.사례3-

"주책맞게 나는 안해....그래도 반대는 안허지... 노인도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없겠어? 나야 하나남하고 결혼한 사람일게 그렇다치고. 다른 노인들...외롭고 쓸쓸한 노인들은 해야지... 남자도 만나보고 맘에 들면 남은 인생 맞는 남자랑 사는 것도 괜찮은거여..." -무.사례4-

4) 여가활동 및 하루의 일과

유·무배우 여자노인의 여가활동은 구체적인 것이 없었고 집에서 TV보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경로당에서 같은 연배의 노인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화투를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은 '여가'라는 단어조차 에도 생소한 듯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노인들이 여가시간에 라디오 청취, 텔레비전 시청, 집안일, 손자녀 돌보기 등 가정 내에서 혼자 소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홍성희(1998)의 연구와 노인들이 여가시간에 라디오 청취 텔레비전 시청 등을 주로 한다는 김익기 외(1999)의 조사결과와 일치한다.

"아이고... 여가가 다 뭐당가? 통 그럴 시간이 없네... 여자가 바깥으로 싸돌아 댕기룬 집안이 흥흥해서 못쓰고...늙어서 기술배워 갖고 어따가 쓴당가? 그냥 여고 할매들과 화투나하고". 가끔 손지들 봐주고 하문 되지...글고 집에서는 텔레비전 보는 것이 다지. 몸이 편해여 놀던지 하지. 글고 노인들이 갈테가 없어. 그니가 거장 집에서 놀지... 하루 일과는 영감 아침 챙겨주고 방 좀 치우고 그러다 점심 챙겨먹고 동네 노인정이나 혼자 사는 동네 친구집에 가서 놀다오지..." -유.사례1-

"여가생활이 뭐당가? 아 우리들이 뭐 그런 것이 있겠어? 먹고 살기도 바쁘디... 지금은 아파서 그것도 못해.. 몸이 불편해서. 근디 나도 그런 것이 하고 잡드라고. 등산 같은 거 말이여...몸에 좋다 하니께. 몸 다 나오든 우리 영감이랑

인자 등산도 댕기도 여행도 다닐라만...” -유.사례2-

“놀 때 특별히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집에서 주는 밥이나 묵고 갱로당에 나와서 놀지. 손발도 제대로 못놀리는디. 그냥 텔레비나 보고... 밥 차려놨다면 가서 밥이나 묵고 내방에서 죽은 듯이 있다가 자고 그래...” -유.사례3-

“누웠다 앉았다 하는 것이 다제...기껏 방에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또 뭐 있겠어? 아! 노인정가서 화투치고. 근디 요즘은 잘 안가. 지난번 언젠가 한번은 돈을 많이 퍼가지고...”-유.사례4-

“머 있나? 이웃 집 놀러 댕기고”.. 그런 게 좋은 것이지... 여기가 시골이라 할매들 하는게 농사일 빼고는 없어. 그리고 난 워낙 놀지를 몰라. 자식들 어렸을 때부터 혼자돼서 놀러 다닌 적도 없고, 차 타는 것도 싫어논게... 난 내 집이 제일 좋아. 가끔 뒷산에 가서 내 땅들 잘 있나 보고 오고...(웃음).” -무.사례1-

“뭐하고 노냐고? 노인정서 같은 할매들하고 얘기하고 고스톱인가도 치고 그래... 혼자 있으면 텔레비를 보는데 볼게 없어... 늙은 심심하고 외롭제... 근디 다 그러고 사는게 아니여?” -무.사례2-

“여가가 뭐여...? 맨 천지가 남은 시간이어... 밥 때 밥 챙기고 손주놈들 보고... 노인정 가고... 동네 마실 댕기제...” -무.사례3-

5) 가족관계

① 가족관계 및 가족관계 만족도

유.무배우 여자노인의 가족관계는 다들 자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진술하고 있었으며 다복한 것으로 표현 되었다. 일반적으로 유배우 여자노인의 경우는 자녀수도 더 많고 연락도 자주 하여 노부모들은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경향이였다. 그런데 무배우 여자노인의 경우는 자녀들이 있긴 하지만 유배우 여자노인들처럼 부모와 자주 오간단든지, 전화로의 연락 등이 부족하다는 표현을 하셨다. 무배우 여자노인들이 배우자의 부재를 자녀에게 대신하고자 하는 기대감에 자녀들이 못 미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자식들은 멀리 있고 영감하고만 살고 있어 자주는 못 댕기고 가끔 내다보고 밥 묵었나 물어보는 정도지라우. 그래도 자식들이 지 할 일 잘하고 있음께 좋소. 맨날 얼굴 마주보고 있다고 좋다이요? 가끔 만나는 것도 좋제...” -유.사례1-

“나랑 우리 영감... 큰 아들, 큰 딸, 작은 딸, 작은 아들, 막내 아들... 우리 자식들 다 결혼했고. 다들 잘 지내는 편 이어... 근디 우리 작은 아들하고 작은 며느리가 우리한테 소홀히 한다닝께. 처가밖에 모르고 명절에도 잘 찾아오지도 않고 서운하게 해... 몹쓸 놈. 올해 우리 영감 생신에도 안 왔더라고... 근디 섭섭한다고 어찌겠어. 내 자식인디... 그것만 없으면 다 좋아...” -유.사례2-

“우리 자식들 여섯을 다 대학교까지 갈치고, 큰놈은 자기 광주서 선생질하고... 둘째도 공무원하고... 딸들도 좋은 사윗감 얻어 시집갔고... 글은 됐제 뭐... 보고 싶어도 나는 생전 그런 내색 안혀... 우리 영감도 통 그런거 못하게 하고...자식들 부담준다고 못하게 하지. 글은 즈그들이 알아서 전화하고 그니께... 저 맘때에는 큰놈이 들고 댕기는 전화긴가를 사 보냈드랑께. 다 늙은 망구가 뭐가 필요하겠어? 전화올 때도 없는디...그래도 자식이 해 준거라서 우리 영감이 목에다 매달고 다니제...” -유.사례3-

“화목하지. 같이 살지는 않지만 자식들하고 전화로 자주 이야기하고... 명절 때 만나고 그러지. 생각 같아서는 자식들하고 맨날 얼굴 보며 지내고 싶지만 그것도 사는게 각자 바쁘고 힘드니...내 생각만 해서 쓰겼어? 만족도? 좋냐 이거지? 좋제... 키울 때는 가난해서 힘들었는디 그래도 키워노니까 용돈도 주고 잘 사니... 뭐, 좋제.” -유.사례4-

“우리 식구? 나가 아들 하나에 딸 너이 낳았는디 지금 다 시집, 장가 보냈제. 지금은 우리 딸 사위랑 같이 살고... 아 안 굶고 먹고 자고 업고 그러는 되지 뭘 만족도여... 자식놈들이 부모 버려는 시상에 나가 이렇게라도 사는게 복이지...” -무.사례1-

“얼굴 못 본지가 꽤 돼가구만...그래도 천화는 하루 저녁으로 허는디... 지 하난거 안께 나를 잘 챙기기는 혀...그래도. 딸네미는 시집가든 녀에 집 사람이여. 그래도 자주보고 살았을 좋겼는디... 우리 사우가 잘 혀...쉬는 날만 되든 내려올라카고 그래...” -무.사례2-

“만족해... 며느리도 잘하고... 딸도 다들 잘하고...지들만 잘 산다며는 더 바랄 것이 없지... 전화도 자주 하는 편이고...뉴스에 나오는 누구처럼 나 몰라라 하는 자식들이 아닌께...” -무.사례3-

② 자녀와의 동거에 대한 생각

유.무배우 여자노인들은 한결같이 자녀와의 동거를 반대하고 있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례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해서’라고 답하고 계셨다. 그러나 몸이 불편하여 더 이상 홀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때에는 자식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었다. 통계청(2002)의 사회 통계조사 결과에 있어서도 나이든 부모 가운데 절반 이상은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따로 살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동아일보, 2003).

“고만 나가 살았음 좋겠네. 아들, 손주새끼들 보는 재미는 있어도... 영 신경 쓰인당께... 저것들은 괜찮탄디 따로 사는 거랑 같간다? 늙은 사람이랑 살라른 손이 많이 가제...” -유.사례1-

“아이고- 같이 살기 싫어. 서로 불편해. 젊은 사람들은 우리랑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달라. 금계 그것을 뭐 세대차이라고 한가? 자식들이랑 같이 안 살아봐서 잘 모르지만 불편할 것 같어. 부모-자식 간도 의가 안 맞으면 싸우게 되겠... 글쎄 얼마나 불편하겠어? 근계 영감이랑 같이 사는 것이 제일 맘 편해...” -유.사례2-

“내가 늙고 병들기 전에는 자식들 신세지기 싫네....즈그들도 자식들 키울라고 쟈가 따지게 고생한다....늙은이까지 모시라고 그러면 좋아한당가? 부모가 아니라 웬수가 되는 것이지....내가 힘있을 때까지는 즈그는 즈그대로. 우리 늙은이들은 늙은이대로 살아야 편하지...” -유.사례3-

“아이고- 싫네 싫어...나가 이렇게 아프지만 두발로 밀쩍이 걸어나고 살만한다...남편도 있고 말어....아직은 자식들한테 의지해서 살고 싶지 않네. 만약 우리 영감이 가고 나도 갈때가 돼서 제 구실을 못하면 우리 자식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나는 자식들하고 사는거 반대여....눈치보면서 사는 것보다 노인네들이 제 할 일 하면서 살아야지....늙으면 자식들한테 손 벌라는 노인네들 때문에 노인들에 대한 생각이 좋지 않잖아...” -유.사례4-

“내가 구지 혼자 사는 이유가 뭐겠어? 문석이 뽁세이기도 하지만....자식들과 같이 한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은 없네.... 자식들은같이 살자고 하지만 내사 싫어. 가끔씩 외로울 때는 자식들하고 손주들하고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도 해 보지만. 그냥 이대로가 편해....아직은 자식들한테 신세지기가 싫네. 이 정도 용돈 보내주고 부족한 거 없이 살면 됐지. 글고 손주들 보면서 사는 것도 낫아라하면 낫이지만 나처럼 활동하면서 바쁘게 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때 많이 움직여줘야 않겠어?”-무.사례1-

“나야 같이 살면 좋제....근디 사우가 좋아하겠어? 어쩌다 보는 거랑 맨날 같이 삼시루 보는거랑 다르제.... 혼자 산지가 오래돼서 그냥 살만혀”. 혼자가 편해.” -무.사례2-

“머... 내가 움직이는 동안은 생각 없어....지금 아직까지는 자식들한테 의지하기 싫어....내가 꿈쩍 못하든 그때는 자식 생각나겠지만...지금은 별 생각 없어. 솔직히 자식들이 같이 살자는 말을 하긴 하지만 그계 진심인지도 모르겠고....나도 눈치보면서 살 생각은 없어....잘 움직이지 못하는 나를.....자식들이 다 돈벌러 나간다. 누가 모셔? 편히 혼자 사는 것이 시상 편해.” -무.사례3-

③ 자녀들의 지원방법

유·무배우 여자노인들은 자녀들로부터 생활비나 용돈과 같은 경제적 지원을 비롯해 말벗이나 전화를 통한 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사례조사에서는 자녀들로부터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무배우 여자노인이 오히려 자녀들로부터 더 적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전혀 지원을 안 받아.... 영감 퇴직금이 있으나께. 즈그들 여유도 별로 없고....그렇거 뻔히 아는데...준다고 해도 내가 안 받지. 명절 때나 내 생일같은 날 주면 그 때는 받지만...계사때도.... 다른 때는 전혀 안 받아. 받아도 머 쓴가? 손주들한테 그냥 다시 가제...” -유.사례1-

“뉘 주는 것 있당가? 뜯겼으면 뜯겼지....명절때나 어버이날 같은때 그리고 생일 때 선물같은 것 데고 따로 용돈 주는건 없다고 봐야제....글고 바라지도 안해. 즈그들 묵고 살기도 바쁠턴디...내가 돈이 없다른사 매달 용돈 받아쓰겠지만나랑 우리 영감 아직 쓸돈이 있는께 안 받아도 괜찮아....” -유.사례2-

“내가 먹고 살수 있을 만큼 달마다 생활비 정도는 부쳐줘....울 자식들한테 참 고맙당께. 돈 말고는 가끔 매느리들이 옷도 사주 고....신발도 사 주고 그래....잘 혀. 전화도 잘 호고.... 지 살기도 바빠서 자주 내려오지는 못해도.... 사우가 용돈도 잘 부쳐주고 혀...” -유.사례3-

“지원하는 것이 뭐 있당가? 지급까지는 우리가 자식들한테 가는게 더 많았제. 돈, 쌀, 고추 등등말여....자식들이 우리들한테 준다 고 한다든 용돈 정도지...앞으로 우리가 더 늙어서 일하지 못할 때는 도와주겠지.” -유.사례4-

“아들 둘은 소식이 없고 딸들만 가끔 소식을 전해라우. 그것들로부터 사실 여러모로 도움올 많이 받고 있소. 근디 자들도 지 식구가 있고 나갈 것이 많을것이 분명하나 에미를 무조건 돕기는 어려울 것이요. 근디도 내가 워낙 어려움 다보니까 개들한테 폐만 끼치는 것 같소.” -무.사례1-

“즈그들도 살기 힘들게 많은 도움은 없지라우. 근디도 생일때나 뉘 날이든 손자들이랑 와 갖고 단 열매라도 줘어 주제.”-무.사례2-

“다달이 생활비 도와주고 맘 안 상하게 해주고 부모 생각한다고 해싸코 그건 게 좋지 뭐....애 안 태우고 즈그가 못살면 못 살았지 나 전혀 성가시게 안하고...손주녀석들이 전화도 자주 하고 한달에 한번 이상은 큰아들 내외가 꼭 들링께....나야 황송하지...”-무.사례3-

“즈그가 맘껏 위로해 주고 엄마를 많이 다독여주는 것 같어....그 중에서도 큰딸은 더 하요. 정말 눈물이 난당께.

말할수 없이 엄마를 많이 생각해....” -무.사례4-

6) 현재 귀하가 가장 하고 싶은 일

유·무배우 여자노인이 현재 가장 하고 싶은 일에는 소일거리가 있어 몸을 움직이고 약간의 보상이 되는 용돈 정도를 버는 것이었다. 그리고 몸이 건강해 지는 것, 자식들이 잘되는 것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원에 대한 만남과 같은 정서적인 욕구 등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무배우 여자노인의 경우에는 하고 싶은게 없고 단지 죽을 날만 기다린다는 무기력한 상태를 표현하는 사례들도 많았다.

“소일거리나 있었음 좋겠어...다른 할말들하고 노인정서 앉아 얘기나 함서 용돈이나 좀 벌게...또 우리 새끼 얼굴이나 보고 왔음 좋겠지... 손주녀석 많이 컸는지도 궁금하고...” -유.사례1-

“소일거리라도 했으면 좋겠어. 젊을 때는 시간도 잘 가든 만. 지금은 하는 일이 없으께 시간도 잘 안 가구만. 작은 거러도 내가 할수 있는 일거리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애. 우리 영감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유.사례2-

“빨리 몸이 좋아져서 일이나 했음 좋겠어.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죽겠어.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이렇게 사난 말이여. 글고 일해서 돈 벌은 우리 손지, 손녀에게 용돈도 주고 할 수 있어 일석이조 같히여...” -유.사례3-

“사실은...우리 영감얼굴 한번 보고 싶어. 우리 영감이 지금 여든이 넘었는데... 몸은 건강한지 몰라. 노인시설에 보낸 다음 미와서 한번도 안 찾아가 봤거든...자식들은 가끔 갔다 왔는데...미우나 고우나 우리 영감인데...말이여... 내가 너무 험다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예전일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서 말이여...올해 넘기기 전에 꼭 한번 갔다와여 할 텐디...” -유.사례4-

“이렇게 늙었는데 내가 뭐 하겠어? 하는 벌이야 쓸고 닦고 하는 것이 지금 그나마 내가 하는 일인데... 남한테 손 안벌리고 살았으면 좋겠어. 요리 저리 맵기고, 이웃집 쟁겨 주고...그러는게 일이지...하고 싶어도 다리가 아픈게 못 하겠어...별로 하고 싶은 일도 없어..현재 일도 잘 못하는디... 늙었으면 조용히 살아야제...” -무.사례1-

“나하고 싶은 것이 뭐 있간디 ? 앞으로 죽는 일만 남았제.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어. 몸이나 안 아팠으면 좋겠는디...날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저기가 많이 아프당께...” -무.사례2-

“하고 싶은거 하나도 없어. 아, 없다니께... 다 늙어갔고 뭐가 하고 싶겠어 ? 없어 ! 그저 멀리 간 우리 아들과고 딸

하고 옆에 살고 있는 우리딸이 잘 사는 것이 오직 바라는거지. 없어...” -무.사례3-

“아직은 어디 아픈데는 없고...모아 둔 돈 좀 있으니가 가게하나 할 까 싶은디...지금 아들이 직장을 못나가나간 돈 좀 보태주고 나중에 내가 못하든 며느리가 맡아서 하든 되니께...” -무.사례4-

7) 국가나 정부에 대한 바람

유·무배우 여자노인들이 국가나 정부에 대해서 바라는 것은 기본적인 노인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으로서 경제적 지원(생활비 보조, 소일거리 마련, 병원비 혜택 등)과 건강보조를 위한 여러 조처(병원 신설, 병원까지의 운송수단의 요구), 노인당과 같은 정서적 위안처의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었다.

“내가 무슨 바라는 것이 있다가 ? 내가 말하든 들어 준 당가 ? 그냥...우리 힘없는 노인네들을 위해서 힘써 달라는 말밖에는 없네...우리 마을에도 노인복지관 같은 거 있잖아. 그것 같은 것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 시골이라 안 세워주는건가 ? 글고 나가 젊었을 때부터 느낀거지만 노인들도 일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 일없이 앉자만 있을라니 죽겠네...” -유.사례1-

“근디 이거는 말을 해야되나 ? 정부가 우리같은 노인들을 도와줄라든 조사가 잘되서 도와줘야지...가만 보면 그것도 백이 있어야 되드랑께. 내가 가만 보니께... 여유있는 사람이 돈을 받드라니까. 글고 늙은이들한테 관심 좀 갖어줬으면 좋겠어. 차도 늙은이가 서있으면 그냥 가 붙어 !” -유.사례2-

“그냥 우리 새끼들 돈 많이 받게 해 주고...글고 요즘 뭐든지 비싸니께 좀 싸게 해줬으면 좋겠어. 뭐가 그러 비싼지...통 물건 사는데 힘들당께. 안 궁가 ? 글고 요즘 텔레비를 보니께 자식놈들이 지부모를 땅바닥에다 내버리고 나 몰라라 하든디. 글면 못쓰게. 천벌받제. 자식놈들한테 따들립당한 노인네들 따신 밥이란 잠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 불쌍혀...” -유.사례3-

“글썸... 뭐... 나같은 사람이야 아직 영감있었다, 집 있겠다, 자식들이 매달 부쳐주는 돈으로 별 지장없이 살지만 어려운 노인들도 많잖애...자식들이 나 몰라라하든 그렇지 뭐...그런 불쌍한 노인네들을 국가에서 어떻게라도 책임져 줘야지. 매달 돈을 좀 주던가해야지...” -유.사례4-

“나같이 건강이 좀 괜찮은 늙은이들한테 일거리를 줬으면 좋겠어. 빈둥빈둥보다는 좀 더 건강할 때 일하는게 좋지 않애 ? 마땅히 써 주는데가 없당께...” -무.사례1-

“나лага 편해야 세상이 편타고...정치를 잘해야 혀...다른

거 없고...대통령이 누군가에 따라 많이 좌우될까...사람들이 잘 뽑아야 해...글고 내가 무릎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다니는데 늙은이들한테는 병원비 좀 싸게 해 줬으면 좋겠어...우리 자식들이 주는 돈이 다 병원으로 빠지니깐 아까워...또 맨날 아프다고 하니깐 미안하기도 하고...글고 내가 촌에 사는데, 촌에도 가까운 곳에 병원이 있었으면 좋겠어. 안 그래도 다리가 아픈디 병원에 한번 땡겨올라든 버스타고 가야지...오미, 그건 고생이여, 고생...그 때마다 자식들 부를 수도 없고. 병원을 못 지어주면 병원까지 차로 좀 대려다 주었으면 좋겠어...내가 믿는 것이 뭐 있었어? 대통령만 믿어야지...." -무.사례2-

"우리 늙은 사람들 약값이 너무 많이 들어...좀 싸게 팔라 그래. 자식들한테도 미안하고...아프면 얼릉 죽어야 한다. 죽지도 않고..." -무.사례3-

"우리는 연금인가 타. 우리 촌에서는 우리가 그나마도 제일 먼저 나서 다른 사람들은 탈 생각도 못하는데 나만 타 먹구만...국가에서 시키는대로 했드만 그 때 못 낸 사람이 후회하고 안 공가? 그때 엇쫓께 내가 타 목지. 2년 전부터 타 목나? 나 손가락 하나 잘렸는디 동사무소 가서 차비같은 거 나 혜택을 줄 수 없나? 했드니 없다고 하대. 떡방아 찧소하다 그랬는디...한달 전남병원에 입원했는디 그래서 나와 부렸어. 갱부에서 일일이 조사해서 혜택을 줄 수는 없지만 혜택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받는 경우도 있당께. 그래도 어쩔건가? 말 못하지. 그런게 있으면 좋지만...." -무.사례4-

IV. 요약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는 유·무배우 여자노인의 전반적인 생활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심층면접을 통한 사례조사를 하였다. 조사대상은 65세 이상된 여자노인으로서 유배우 여자노인의 경우는 14사례가 조사되었고 무배우 여자노인의 경우에는 18사례가 선정되어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1) 경제상황 2) 건강상태 3) 정서적 문제(부부적응문제 또는 홀로 된 삶에 대한 느낌, 자녀·친척·친구·이웃과의 관계, 최근 가장 기쁠 때와 괴로웠던 때와 그 이유, 가장 쓸쓸할 때와 그 이유, 괴롭거나 어려운 일에 대한 해소방법, 나이 든 분들의 이성교제와 재혼에 관한 생각) 4) 여가활동 및 하루의 일과 5) 가족관계(가족관계 및 가족관계 만족도, 자녀와의 동거에 대한 생각, 자녀들의 지

원방법) 6) 귀하가 현재 가장 하고 싶은 일 7) 국가나 정부에 대한 바람 등의 순으로 노인들의 진술을 가지고 내용분석을 통해 분류하였다.

1) 경제상황

본 조사를 통한 노인들의 사례에서 경제상황에 대한 질문(경제상황, 경제적 관리는 누가, 용돈의 출처와 지출용도)에 대해 응답은 다양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특히 무배우 여자노인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각하였다. 그리고 용돈은 주로 자녀들이 주는 것으로 충당하고 있었으며 그 지출용도는 병원비나 약값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생활비에 보태거나 손자녀들의 용돈, 현금 등 필요시에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2) 건강상태

조사된 사례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여자노인들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병은 관절염으로 인해 걸음걸이가 어려워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였다. 그 이외에도 위염, 고혈압등의 노인성질환이 많았으나 치료가 거의 방치된 채 이루어지지 않았고 죽지 못해 산다고 푸념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건강상태에서는 배우자의 유무와는 관련없이 모든 여자노인들이 한가지 이상의 질병은 다 가지고 계셨다.

3) 정서적문제

대체적으로 유배우 여자노인들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관계가 원만하며 잘 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년기의 부부적응을 '이심 전심'으로 표현했던 옛말이 생각나게끔 한다. 그러나 부부관계를 물어보는 말에는 대답을 회피하거나 꺼리는 등 입에 올리기가 어려운 내색을 하였다. 그리고 무배우 여자노인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재를 자녀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고 할 수 없으니까 산다는 고독감을 나타내고 있었다.

유·무배우 여자노인들의 자녀, 친척, 친구, 이웃과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배우 여자노인들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재를 자

녀와 친밀하게 지내는 것으로 대신하는 경향이 많았고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가족에게 특히 바라는 것은 유·무배우 여자노인 모두가 한결같이 자녀가 건강하고 잘 지내는 것을 원하고 있었으며 자주 만나보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

유·무배우 여자노인들의 가장 기뻐했다고 상기했던 때는 주로 자녀들이 찾아와서 만나는 명절이나 본인들의 생일 또는 배우자의 제삿날 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자녀와의 만남을 첫 번째로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자녀와 관계되는 일이 잘 되는 것을 거론하고 있어 노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기쁨의 일순위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괴로웠던 때로 모든 여자노인들이 한결같이 몸이 건강하지 못하여 아플 때임을 지적하고 '건강치 못함'을 괴로운 일의 일순위로 여기고 있었다.

여자노인들에 있어 가장 쓸쓸한 시기와 그 이유에 있어서 유배우 여자노인의 경우에는 명절이나 노부부의 생일 때 자녀들이 다녀간 뒤끝이 가장 쓸쓸하고 서운하며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때라고 진술하고 있었다. 반면 무배우 여자노인의 경우에는 세상을 떠난 배우자가 그리울 때와 몸이 아파 괴로울 때가 가장 쓸쓸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여자노인에 있어 배우자의 유무는 그들의 정서적 문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

유·무배우 여자노인들이 괴롭거나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해소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는 종교에 의지하는 것이었고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 친척에게 하소연함으로써 해소하고 있었다. 해소방법에 대한 질문 중에 무배우 여자노인들이 정서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더 여실히 나타났는데 유배우 여자노인들의 해소방법인 타인과의 어울림보다는 주로 사별한 배우자에 대한 기억과 함께 울든지, 기도하든지, 술에 의존하는 방법으로 혼자 해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유·무배우 여자노인들의 이성교제와 재혼에 관한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다. 우선 대부분의 여자노인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 고달프게 생각하고 두 번의 결

혼생활로 인해 자신을 희생하고 싶지 않다는 표현을 하셨다. 그러나 일부 여자노인의 경우에는 이성교제와 재혼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여기고 계셨다. 그리고 무배우 여자노인이 유배우 여자노인보다 오히려 현재의 홀로 된 생활에 익숙해서인지 이성교제와 재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4) 여가활동 및 하루의 일과

유·무배우 여자노인의 여가활동은 구체적인 것이 없었고 집에서 T.V.를 보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경로당에서 같은 연배의 노인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화투를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가족관계

유·무배우 여자노인의 가족관계는 자녀와의 관계를 가장 많이 진술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다복한 것으로 표현되었다. 일반적으로 유배우 여자노인의 경우는 자녀수도 더 많고 연락도 자주 하여 노부모들은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경향이였다. 그런데 무배우 여자노인의 경우는 자녀들이 있긴 하지만 유배우 여자노인들처럼 부모와 자주 오간다든지, 전화로의 연락 등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유·무배우 여자노인들은 한결같이 자녀와의 동거를 반대하고 있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례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같이 사는 것이 불편해서가 가장 크고 혼자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는 혼자 살더라도 몸이 불편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때에는 자식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었다.

유·무배우 여자노인들은 자녀들로부터 생활비나 용돈과 같은 경제적 지원을 비롯해 말벗이나 전화를 통한 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조사에서는 오히려 자녀들의 지원이 더 필요한 무배우 여자노인이 자녀들로부터 더 적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6) 현재 귀하가 가장 하고 싶은 일

유·무배우 여자노인이 현재 가장 하고 싶은 일에는 소일거리가 있어 몸을 움직이고 약간의 보상이 되는 용돈 정도를 버는 것이었다. 그리고 몸이 건강

해 지는 것, 자식들이 잘되는 것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원에 대한 만남과 같은 정서적인 욕구 등이 있었다. 그런데 무배우 여자노인의 경우에는 하고 싶은 게 없고 단지 죽음만을 기다린다는 무기력한 상태를 표현하는 사례들이 많았다.

7) 국가나 정부에 대한 바람

유·무배우 여자노인들이 국가나 정부에 대해서 바라는 바는 노인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으로서 경제적 지원(생활비 보조, 소일거리 마련, 병원비 혜택 등)과 건강보조를 위한 여러 조치(병원 신설, 병원까지의 운송수단의 요구), 노인당과 같은 정서적 위안처의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었다.

2. 제 언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제언을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노인들에 있어 가장 절실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빈곤'이라 할 수 있다. 노인들의 경제상황은 일시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안정이라는 점에서 만성적인 또는 고질적인 생활실태(chronical life state)라 일컫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인의 경제상태는 건강상태와 함께 노년의 삶을 예언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 더구나 노인들에 있어서 은퇴는 소득의 상실을 가져오고 결국 부정적인 자아상을 초래하여 고립과 외로움의 정서적인 문제까지 낳게 된다. 게다가 남성중심적 가치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살아오면서 여자노인은 경제력이 취약하여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그 중 무배우 여자노인의 경제상황은 훨씬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들 여자노인이 국가나 정부에 바라는 점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국가나 정부가 여자노인을 위한 사회복지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즉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으로는 생계비의 보장, 가족수당과 연금의 지급, 세금우대나 노인할인 혜택, 주택마련과 같은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건강은 어느 연령층에서보다도 노인에게는

중요한 개인적 차원으로서 생활만족도의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건강한 노인은 그렇지 못한 노인보다 생활에 더 만족해하고 사회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승덕, 1995;이신숙, 1995 ; McClelland, 1982;Quinn, 1983;Edwards, 1973). 이러한 결과는 객관적인 건강상태보다 자기보고식 주관적인 건강평가에서 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노인들이 갖는 건강문제는 점진적인 신체적 쇠약, 충분하지 못한 경제력으로 인한 영양불량, 만성질환의 발병, 과도한 약물복용으로 인해 건강회복이 더디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노인환자의 임상적 특징은 증상이 없거나 비전형적이고 개인차가 크며 동시에 여러 질병을 갖고 있으며 합병증이 많다(노년학회 편, 2001).더구나 의학기술의 발전과 영양상태의 호전은 신체적 노화와 더불어 장수를 동반한 유병장수하는 노인의 수를 급증시키고 있다. 특히 여자노인들의 경우에는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일상생활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들의 건강이 악화될 때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따라서 여자 노인의 높은 치매율과 장기요양보호를 볼 때 이들을 위한 요양시설을 확대하고 이들 기관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복지서비스가 열악한 지역(특히 농촌)에서의 복지접근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개선 및 재가보호서비스를 강화함이 필요 할 것이다. 또한 가족서비스 지지자의 개발, 노인케어 전문인력의 양성 등 광범위한 노인건강 보호를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여자노인들의 삶은 거의 가족과 맞물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삶 모두가 가족과 자손이 중심축으로서 자리 잡고 있어 그들의 정서체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자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은 공적서비스의 기반 위에 가족과의 긴밀한 유대감이 동반할 수 있는 사적부양체계의 활성화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모를 부양하는 자녀들에 대한 지원정책, 재가보호를 도울 수 있는 각종 서비스의 확대 등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유·무배우 여자노인 대부분은 사회적 역할을 상실한 채 끝없이 전개되는 ‘여가와와 싸움이다’는 느낌을 받는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여자노인들은 특별히 할 일이 없다보니 시간이 많이 남게 되고 따라서 하루가 지겹고 딱분하게 느껴진다고 호소하며 소일거리가 주어지면 일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썼다. 평균수명은 늘어났지만 정년퇴직의 연령은 연장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은퇴기에 있는 1/3의 사람들이 일을 계속할 수 있다고 연구보고들은 밝히고 있다. 노인들에 있어 일의 의미는 수입의 도구라는 것 외에 삶의 새로운 기회로서 자신을 여전히 유용한 존재로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일을 통한 성취감도 맛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따라서 노인여성을 위한 새로운 일거리 창출, 여가활동이나 놀이/ 사회봉사프로그램 개발로 자신의 주어진 위치에서 역할이 부여될 수 있는 생산적인 고령화 사회로의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들 스스로도 ‘인생은 지금부터’라는 생각으로 가깝게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 나서는 마음자세가 중요할 것이다. 요즘 미국에서는 5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활동적인 생애 만들기(Active for life TM)’ 캠페인이 한창인데 이것은 하루 30분 이상, 주 5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자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시적 자서전적 분석방법을 통해 유·무배우 여자노인의 전반적인 생활실태를 조사하였다. 그러나 조사지역이 전남의 S시를 중심으로 한 농촌 지역이고 여자노인이 갖는 다양한 특성은 무시하고 단지 배우자의 유무로 이들 여자노인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진솔로 여자노인들의 심층적인 삶을 이해하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 투고일 : 2004년 1월 15일

참고문헌

권중돈, 조주연(2000).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3), 61-76.
고승덕(1995). 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추출

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김영화 외(2002).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서울 : 양서원.
김익기 외(1999). *한국노인의 삶 : 진단과 전망*. 미래인력연구센터.
김태현(1986). 노년기의 생활만족도 연구 -발달과업성취도와 상관연구- 성신연구 논문집, 23.
(2000). 노년학. 서울: 교문사.
김태현 외 4인(1998).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8(1), 150-169.
(1999).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II) *한국노년학*, 19(1), 61-81.
동아일보(2003). *고령화 사회 <2> ‘NO老 인생’ <4> 여성노인의 현주소*
박경란(1988). 노년여성의 생활만족도 연구 -장남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박충선(1990).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분석적 연구. *여성연구*, 8(3).
보건복지부(1999). 1999년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2000). 2000년 통계연보.
(200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서은정(1993). 여성노인의 무용활동 참여에 따른 활동요인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한양대 석사학위 논문.
송주은(1993). 가정경영에 대한 노인의 의사결정권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녀와 동거하는 여자노인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윤종희, 이혜경(1997). 배우자가 없는 여성노인의 자아존중감, 건강상태, 가족관계, 사회활동 참여도에 따른 생활만족도. *한국노년학*, 17(1), 289-304.
이신숙(1995). 유·무배우 여자노인들의 경제상태, 건강상태, 가족의 지원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제3집, 159-179.
(1998). 여자노인의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I). *한국가정과학회지*, 1(2), 48-60.
이혜숙(1994). 가정환경 변인과 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경희 외(1998). 1998년도 전국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옥희(1991). 홀로 된 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 최정신(1999). 농촌노인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9(3), 121-139.
- 통계청(2001). 1999년 생명표.
-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90).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 구조 : 한국, 일본, 태국, 미국, 영국, 프랑스 6개국 노인의 의식구조 비교조사.
- 홍성희(1998).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와 여가만족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107-123.
- Birren, J.E., & Hedlund, B.(1987). Contributions of autobiography to developmental psychology. In N. Isenberg(Ed.), *Contemporary topics in developmental psychology*(394-415). New York : Wiley.
- Chatfield, W.F.(1977). Economic and sociological factors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of aged. *J. of Gerontology*, 32(1), 539-599.
- Freed, M.M.(1984). Quality of life, the physicians' dilemma,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65, 109-111.
- Ling, J.(1982). Sex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J. of Gerontology*. 36(1), 85-89.
- Mannell, R.C. & Dupuis, S.(1996). Life satisfaction. in J.E.Birren(ed.). *Encyclopedia of Gerontology*(vol.2). New York : Academic Press. 59-64.
- McClelland, K.A.(1982). self-conceptions and life satisfaction : Integrating aged sub-culture and activity theory. *J. of Gerontology* 36, 723-732.
- Morgan, L.A.(1976). A re-examination of widowhood and morale. *J. of Gerontology*, 31(6), 687-695.
- Palmore, E. et al.(1979). Stress and adaptation in later life. *J. of Gerontology*, 34, 841-851.
- Tompson, L.W. et al.(1984). Effects of bereavement on self preceptions of physical health in elderly widows and widowers. *J. of Gerontology*, 39(3). 309-314.